『종교학연구』 제39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1, pp. 123-149.

영화 <미드소마(Midsommar, 2019)>에 나타난 희생제의와 에로티즘

: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의 '연속성' 개념과 내적 변화를 중심으로

고 마 리*

目 次

Ⅰ. 서론
Ⅱ.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과 희생제의
  1. 연속성 개념과 죽음의 의미
  2. 종교적 에로티즘과 희생제의
Ⅲ. 〈미드소마〉 속 희생제의와 종교적 에로티즘
  1. 금기와 위반의 전복
  2. 극단적인 순간과 죽음의 긍정
Ⅳ. 〈미드소마〉에 나타난 연속성 회복과 내적 변화
  1. 호르가의 순환 원리와 공동체의 생존
  2.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의 긍정
Ⅴ. 결론

Ⅰ. 서론

작열하는 태양 아래, 두 노인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다.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노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다. 스웨덴 헬싱글란드의 작은 마을, 호르가 공동체의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한 영화 <미드소마(Midsommar, 2019)>[1]의 한 장면이다. 주인공 대니는 조울증을 앓던 동생이 가스로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을 겪는다. 권태로움밖에 남지 않은 연인 크리스티안에게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호르가 마을 출신인 펠레의 초대를 받아 친구들과 함께 스웨덴의 하지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미드소마>는 매년 6월 시작되는 스웨덴 최대의 축제인 '미드솜마르'를 차용하였다. 미드솜마르가 시작되면 스웨덴 사람들은 5주 동안 도시를 떠나 고향을 방문한다. 화관을 만들어 쓰고 메이폴(Maypoll)을 돌면서 춤을 춘다. 풍요로운 여름을 기념하는 축제인 만큼 절인 청어, 햇감자, 각종 육류와 해산물 등을 먹고 첫 여름 딸기로 만든 케이크와 술을 곁들이는 것이 관습이다. 하지만 <미드소마>는 절벽의식(Ättestupa)을 시작으로 외지인들을 무참히 살해해 인신공희로 삼는 죽음의 축제로 변한다.

미국의 각본가이자 영화감독인 아리 애스터(Ari Aster)[2]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 <미드소마>는 그의 전작인 <유전(Hereditary, 2018)>에 이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소재로 다룬다. <유전>에서는 악마 왕을 인간의 몸에 소환하려는 종교 집단에 의해 희생되는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었다. <미드소마> 역시 낯선 마을에서 하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살인을 주요 사건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두 영화는 죽음을 소재로 하면서도 모두 의례의 형식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의례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죽음은 의례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드소마>는 이러한 의례의 형식과 원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드소마는 호르가 공동체의 독특한 세계관을 지탱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

---

1) <미드소마>는 실존하는 동명의 스웨덴 전통 축제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명칭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영화를 지칭할 때는 <미드소마>로 표기하고 축제로서의 미드소마를 지칭할 때는 미드소마 혹은 하지 축제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아리 애스터는 1986년 뉴욕 시에서 태어났다. 2011년 단편 영화 <TDF Really Works (2011)>에서 감독과 각본, 주연을 맡아 데뷔한 이후 <The Strange Things About the Johnson (2011)>, <Beau (2011)>, <Munchausen (2013)>, <Basically (2014)>, <The Turtle's Head (2014)>, <C'est La Vie (2016)> 등의 필모그래피를 이어갔다. 2018년 <유전>으로 장편 영화 데뷔와 함께 유망감독상을 수상하였고 <미드소마>가 가장 최근작이다.

들은 90년 주기로 생명이 순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 축제를 통해서 그 동안 쇠한 생명력을 태동하는 봄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의례에 죽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생명과 죽음의 역설은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의 에로티즘(Erotism)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플라톤(Platon)이 생의 욕구로 제시한 에로스(Eros) 개념은 20세기 정신분석학의 등장으로 심화되었다. 에로스와 죽음의 충동의 대응관계를 발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처럼 바타유 역시 에로티즘에서 죽음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타유는 성적 방종으로 극대화되는 에로티즘의 폭발하는 생명력은 죽음을 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연속성(continuity)'으로 존재의 근본을 설명하면서 에로티즘과 죽음의 역동적인 관계를 밝힌다.

특히 바타유는 성적 방종과 종교적 제의가 에로티즘의 원리 안에서 동질적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미드소마> 속 죽음을 적절하게 분석할 이론적 준거가 된다. 바타유의 종교적 에로티즘은 금기시되는 죽음이 의례에서 제한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에 설명을 제공한다. <미드소마> 속 죽음 역시 일종의 희생제의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데, 바타유는 죽음의 긍정이 가져오는 존재론적 변화가 위반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미드소마>의 하지 축제는 죽음이 긍정되는 희생제의로서 종교적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드소마>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무하고 국외의 경우 몇 가지 논의가 있으나 종교학적 접근은 미비한 수준이다.[3] 다만 <미드소마>에 대

3) 국외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호르가 마을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민속 호러(folk horror)의 장르적 특성과 사물이론(Thing Theory)을 접목시켜 애니미즘과 스웨덴 민족주의를 다룬 연구. Robert Spadoni, "Midsommar: Thing Theory,"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37 (2020): 711-726. <미드소마> 속 의례적 성관계의 함의를 다루지만 에로티즘과 무관한 연구. Joshua W. Katz et al., "Ambiguous Sex in Critical Receptions to Ari Aster's Midsommar," *Sexuality & Culture* 25 (2021): 2035-2051.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관점에서 주인공이 호르가 마을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 Emily Reese, "Attractive Oblivions: Identity, Queer Theory, and Heterotopias in Ari Aster's Midsommar and Margaret Atwood's The Heart Goes Last" (Master's Thesis, Youngstown State University, 2020). 공포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이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서 경험한 절망을 힘으로 전환

한 종교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논평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드소마> 속 축제의 희생제의적 면모를 포착하고 이를 에로티즘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고대종교의 원형이기도 한 희생제의라는 종교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확인하고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미드소마>의 희생제의를 분석할 도구로 바타유의 에로티즘의 내용을 정리한다. 특히 에로스 개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또한 희생제의를 좀 더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바타유가 존재의 근본으로 정의한 연속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연속성이 파괴되는 죽음의 과정을 존재의 위기로 본 에로티즘이 어떻게 다시 생을 향한 긍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죽음과 생명의 역설은 바타유가 성적 무질서와 종교적 제의의 유사성을 도출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희생제의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긍정하는 에로티즘을 바탕으로 <미드소마> 속 죽음과 희생제의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에로티즘에서 도출한 근거인 금기와 위반, 그리고 극단적 순간과 내적 변화라는 두 측면의 설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긍정을 통해 회복하는 연속성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전자는 공동체의 생존 문제에서 희생제의의 역할을 다루고 후자는 진정한 자아의 긍정이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Ⅱ.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과 희생제의

1. 연속성 개념과 죽음의 의미

플라톤이 가장 세속적인 성애(性愛)부터 궁극의 신애(神愛)에 이르는 에로스의

시켜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을 주장한 연구. Diana G. Shultz, ""She Is Finally Free": An Analysis of Women's Pathologized Oppression and Reclamation of the Abject in "The Yellow Wallpaper" and Midsommar" (Master's Thes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2020).

상승에 대해 소개했을 때부터 에로스는 양극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결핍된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갈구는 만족과 불만족, 지향과 좌절, 생의 애착과 죽음에의 동경과 같은 이중성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4] 이들 중 생명과 죽음의 관계는 바타유의 에로티즘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에로티즘은 존재의 근본에 대한 바타유의 고찰에서 시작한다. 그는 존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태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존재의 뿌리는 연속성에 있다고 정의한다.[5]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존재는 가장 완전하고 안정된 자아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일관성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연속성이 질서, 생명을 의미한다면 비연속성은 무질서, 죽음과도 같다.

에로스 개념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죽음을 발견한 것은 바타유 이전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먼저였다. 프로이트는 에로스가 삶을 향한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성애로 대표되는 에로스는 사랑의 절정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유아기 이후 형성된 감각적 자아가 소멸될 위기라고 여겼다.[6] 특히 신과 합일함으로써 얻는 '대양적 느낌(oceanic feeling)'은 유아기 이전의 원초적 자아로 돌아가려는 심리적 퇴행이라고 비난하였다.[7] 또한 프로이트는 문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성적 방종을 야기할 수 있는 에로스를 경계했다. 쾌락원칙을 좇는 에로스가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에로스가 적절히 표출되도록 그것을 억압하는 심리적 기제들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도덕원칙을 따르는 초자아(superego)이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인생 후기에 발견한 것

---

4) 정승옥,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그리고 문학」, 『인문과학연구』 35 (2012): 97

5)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24.

6)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문명 속의 불만』, 성해영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52.

7)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56. 또한 프로이트는 같은 책 62쪽에서 "기뻐하라. 저기 장밋빛 속에서 숨 쉬는 자여..."로 시작하는 실러의 시 <잠수부(Der Taucher)>를 인용해서 원초적 자아에 가까이 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바로 죽음의 충동, 즉 타나토스(thanatos)이다.

그러나 바타유가 에로티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죽음과 프로이트의 타나토스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프로이트는 타나토스를 에로스의 무분별한 표출을 억압하고 에로스에 역행하는 죽음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타나토스는 유기물인 인간이 이전의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충동에 가깝다.[8] 그러나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죽음을 에로스와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타나토스는 문명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면서 심리학적 차원에 있으나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전개한다는 점에서 둘은 구분된다.[9] 그는 연속성을 회복하는 생명 추구의 목적 하에 죽음도 긍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자아의 퇴행이 아니라 자아의 긍정에 있어서 에로스와 죽음의 관계를 고찰한 바타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로티즘은 "잃어버린 연속성에 대한 향수"[10]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바타유 역시 성행위가 에로티즘의 정수이자 존재의 위기를 가져오는 죽음과 연관된다고 생각했다. 성적 방종은 외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죽음의 충동과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연속성은 불연속성으로, 질서는 무질서로 변해 간다. 그리고 성행위의 절정에서 황홀경을 경험할 때 존재 간의 경계는 사라진다. '나'가 곧 '너'가 됨으로써 존재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연속성을 회복하게 된다. 결국 성행위로 대표되는 에로스의 생명력은 죽음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성적 무질서와 관계 깊은 고뇌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인식하게 한다. 무질서의 폭력은 무질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죽음을 인식하는 경우 그의 내부에 죽음의 심연을 열어 놓는다."[11] 그러므로 성행위라는 에로스의 폭발적인

---

8)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서울: 열린책들, 1998). 78.

9) Sergey Zenkin, "GEORGES BATAILLE: Science and Continuity," *Romanische Forschungen* 123 (2011): 36.

10)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6.

11)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19.

추구는 죽음과 맞닿아 있다. 바타유는 성행위의 절정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작은 죽음(la petite mort)'은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에로틱한 순간은 심지어 이 생명의 절정이거니와 그 가장 큰 힘과 그 가장 큰 밀도는 두 존재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하나로 결합되며 그리하여 영속화되는 순간에 드러난다. 문제는 생명이다. 문제는 생명을 생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생식할 때 생명은 범람한다. 그리고 생명은 범람 하면서 극도의 착란에 이른다. 넘치는 관능 속에서 몸부림치며, 황홀하게 의식을 잃고, 마침내 심연으로 빠져든 이 뒤섞인 육체들은 훗날 그들을 소리 없는 부패에 갖다 바칠 그 죽음의 반대쪽으로 향하는 듯 보인다. 에로티즘은 탄생, 즉 죽음의 참화를 끝없이 보상하는 생식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적 무질서의 마지막 국면에서 '작은 죽음'이란 이름을 부여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그 성적 무질서에서 장례적 의미를 보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잘못일까?[12]

그러므로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존재가 연속성을 상실하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존재의 위기는 불연속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자아의 죽음이 선행될 때 더 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로티즘의 과정은 죽음으로 인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생명이 지속되는 한,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바타유가 말하는 죽음은 무생물로의 회귀, 생명의 단절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죽음이 생명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긍정된다는 것은 에로티즘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변주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존재는 죽음을 통해 연속성을 가진 새로운 자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에로티즘의 독특한 죽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타나토스와 달리 에로티즘이 다루는 죽음은 허용될 뿐 아니라 추구된다. 오히려 이러한 죽음의 순간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13] 그러므로 연속성을 둘러싼 죽음의 잠재력은 삶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갱신하고 더 큰 연속성을 획득하는 데 있다.

---

12)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에로스의 눈물』, 유기환 옮김 (서울: 문학과의식, 2002), 28-29.

13)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95.

2. 종교적 에로티즘과 희생제의

죽음이 야기하는 내적 변화는 성애와 신애의 유사성을 밝히는 작업의 근거가 된다. 바타유는 성행위라는 가장 세속적인 에로티즘에서 종교적 에로티즘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즉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 제의가 성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종교적 에로티즘이다. 제의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로티즘은 고대종교의 형태인 희생제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성행위와 희생제의는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엿보게 한다. 중요한 것은 성행위에서 경험되는 죽음이 희생제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앙리 허버트(Henri Herbert)와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희생제의의 핵심은 변화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희생제의는 희생제물의 성화(consecration)를 통해 그것을 수행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어떤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종교적 행위"[14] 인 것이다.

종교적 에로티즘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는 우선 제물에게서 나타난다. 제물은 물리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하지만 종교적 제의라는 특수한 상황은 제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거듭나게 한다. 후반부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희생제의에서 제물은 사실 신의 대체물이기 때문이다. 신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간부터 일반적인 동물에 이르기까지 제물은 제의를 통해 기존의 평범함을 버리고 신적 존재라는 연속성을 입게 된다. 희생제의는 의례 참여자들 혹은 의례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제물의 죽음을 매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거나 공동체와 동질화되는 방식으로 죽음과 갱신을 경험한다. 이들은 제물이 상징하는 신과 연속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상당히 에로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에로티즘에 대한 설명이 결코 종교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은 당

14) Henri Herbert and Marcel Mauss, *The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 of Sacrif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13.

연하다."[15] 바타유는 몇 가지 종교적 제의를 사례로 참조하고 있다. 종교적 에로티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실천으로 여겨지는 것은 디오니소스 의례이다.[16] 이 사례를 통해서 세속적 에로티즘과 종교적 에로티즘이 의례 속에서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오니소스의 숭배자들은 술에 취해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디오니소스의 성기를 신성화하여 경배하는데 집단 성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의례 참여자들은 취기와 쾌감에 도취되어 연속성에서 불연속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우선 폭력 행위로 가시화된다. 이들은 염소나 당나귀, 심지어 어린아이를 산 채로 찢어 그 살을 뜯어 먹는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제물과 참여자들에게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에 가깝다. 집단 성행위와 짐승을 죽여 먹는 것은 모두 신과의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 의례에서 제물이 되는 짐승은 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17]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을 극대화하는 희생제의의 원리는 참여자들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어린아이를 먹어 그 에너지를 내재화하는 데에도 작동하고 있다. 종교적 제의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제물과 참여자들을 신성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에로티즘이 포착하는 생명과 죽음의 이중성은 속세와 신성이라는 이중성과 연결되면서 종교적 에로티즘의 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무질서와 죽음으로 가득 찬 "광기 그 자체가 신성의 본질"[18]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적 에로티즘은 죽음의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희생제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신성한(sacred)'과 '공희(sacrifice)' 사이의 음절적 유사성은 죽음과 연속성의 변화라는 종교적 에로티즘을 함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에로티즘은 <미드소마>에 나타나는 인신공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드소마>와 종교적 에로티즘의 공유하는 독특한 죽음의 의미를 확인할

15)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35.

16) 조르주 바타유, 『에로스의 눈물』, 72.

17) Jeffrey B. Russell and Mark W. Wyndham, "Witchcraft and the Demonization of Heresy," *Mediaevalia* 2 (1976): 6-8.

18) 조르주 바타유, 『에로스의 눈물』, 69.

수 있다. 다음에서는 종교적 의례 과정에서 허용되는 죽음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드소마> 속 희생제의를 분석한다.

Ⅲ. <미드소마> 속 희생제의와 종교적 에로티즘

1. 금기와 위반의 전복

바타유는 에로티즘에서 일상의 금기와 제한된 위반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질서에 복종하는 인간의 특성을 발견한다.[19] 디오니소스 의례의 경우에도 성적 방종과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이 용인된다. 이처럼 희생제의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일시적으로 위반이 허용된다. 바타유는 죽음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금기와 위반으로 설명한다. 동물적인 성욕이 금기시 되듯이 신성한 존재를 죽이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에로티즘은 억압된 본능의 표출을 통해 금기가 위반되는 것을 포함한다. 희생제의 역시 일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질서와 도덕이 일시에 연속성을 상실하는 의도된 무질서의 장이 된다.

<미드소마>에서는 외지인들이 호르가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하늘과 땅을 일시에 반전시켜 연출함으로써 금기의 역전을 표현한다. 이것은 호르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희생제의에서 죽음을 둘러싼 선과 악의 가치체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됨을 암시하는 설정이다. 미드소마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죽음은 주인공을 비롯한 외지인들에게는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호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의례적 맥락에서 위반이 허용된다. 미드소마 첫날 행해진 절벽의식에 대해 두 집단이 보이는 반응은 죽음에 대한 금기와 위반의 질서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투신하는 두 노인과 즉사하지 못한 노인의 머리를 평온하게 부숴버리는 호르가인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대처와 거리가 멀다. 희생제의라는 특수한 맥락을 배제하고 본다면 이러한 의식은 금기시되는 자살이자

19)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9.

살해에 해당한다.

절벽의식 외에도 <미드소마>의 희생제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인신공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기와 위반의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위반이 허용된 호르가인들은 외지인의 가죽을 벗겨 짚으로 채우거나 익사시켜 강의 여신에게 바친다. 누군가는 등을 갈라 허파를 꿰어 천장에 매달아 놓는 피의 독수리 형벌을 받기도 했다. 크리스티안의 경우 사지가 마비된 채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불태워진다. 죽음의 방법과 외연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기의 희생제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인간이 신과 가장 가깝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로서 왕이나 왕의 아들, 딸을 제물로 삼다가 인간을 대체하는 제물로 바뀌어갔다.[20] 동물이 일반적인 제물이 되긴 했지만 신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희생제의는 기본적으로 신을 살해한다는 금기를 위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살해당하는 신에 관해서는 초기 인류학자인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의 저서『황금가지』2권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프레이저는 공감법칙을 따르는 주술의 사례들을 검토한다. 서로 닮은 것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모방주술에 속하는 오시리스 의례는 오시리스 신의 죽음과 부활을 재연한다.[21]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의 죽음은 생명력의 폭발과도 같은 부활을 재연하기 위해 선행된다. 동류의 의례들은 신을 죽인 다음 부활시킬 때 발생하는 생명력을 농작물이 자라날 땅에게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신성한 존재를 죽였다가 살리는 의례는 평소에는 절대적인 금기에 해당하지만 의례를 통해서 무력화된다. 죽음의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된다는 에로티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신성한 인간이라고 여겨지는 왕과 왕족을 죽이는 의례 역시 같은 원리에 따라 금기를 위반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디오니소스 의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성한 존재로 변화된 동물이나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 역시 결국은 신을 죽이고 먹는 위반행위라

---

20) Lord Raglan, “Myth and Ritual,” *Journal of America Folklore* 68 (1995): 459.

21)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황금가지2』, 박규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53-82.

고 볼 수 있다.

신성한 동물에 대한 금기와 위반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소개한 오스트레일리아 부족의 토테미즘 의례인 인티치우마(intichiuma) 의식에서 두드러진다. 고대 씨족 사회의 토템은 죽이거나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의례에서는 제물이 된다.[22] 매번 우기가 시작되면 씨족 남자들은 토템동물을 죽이고 신성한 식사로 먹는다. 이들은 신성한 존재를 죽이는 위반을 저지르지만 용인된다. 오히려 인티치우마에서 참여자들은 토템동물을 죽임으로써 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여긴다. 그리고 토템 동물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스스로에게 돌려 받는다. 죽음이 생명의 극대화를 위해 용인되는 에로티즘처럼 희생제의는 금기에 대한 범람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성시되는 것을 죽이는 금기는 희생제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반되어야만 한다. 농업을 관장하는 신의 죽음을 재연하는 의례, 신의 대리자로서 왕족을 제물로 바치는 의례, 그리고 씨족의 토템동물을 죽여 먹는 의례는 모두 생명의 극단적인 추구와 관계된다. 에로티즘은 이러한 금기를 허용하는 원리가 된다. <미드소마>에서 발생하는 죽음에서도 금기가 위반되는 희생제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 축제는 주로 인간을 제물로 삼지만 곰 가죽을 씌우는 등 동물의 외형을 취하기도 한다. 곰 등이 호르가인들의 토템동물인지는 언급된 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생명을 부여해 줄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얻는 생명은 곧 존재의 근본인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제의가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연속성은 크게는 의례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드소마>의 희생제의 역시 개인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호르가 공동체의 다가올 90년의 삶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에로티즘은 연속성의 문제를 처리하는 희생제의에서 죽음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포착한다.

---

22)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서울: 민영사, 2017), 441-60.

2. 극단적인 순간과 죽음의 긍정

바타유는 성적 절정과 같이 극적인 순간이 종교적 에로티즘에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순간은 존재의 근본이 되는 연속성이 흔들리는 존재의 위기 상황이다. 죽음의 순간과도 같은 극적인 순간은 연속과 불연속을 오가는 내적 체험이 발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23] 그러나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죽음까지 인정했듯이 이러한 존재의 위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데에 강조점을 둔다. 그 순간에 발생하는 죽음은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연속성을 획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존재가 유지해 온 동질성을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24], 즉 어떤 극단적인 순간을 긍정하는 것이 에로티즘의 중요한 내용이다. 에로티즘은 죽음이야말로 존재가 진정한 자아로 변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도 어떤 극단적인 순간은 있는 법이다. 극단이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삶의 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러한 순간은 우리의 삶이 기대고 있는 근거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극단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를 받쳐주던 것을 문제 삼을 힘도 얻기에 이른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순간을 부인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할 것이다.[25]

<미드소마>는 이러한 극단적인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연속성을 상실한 존재의 위기는 주인공 대니가 겪는 가족 및 연인과의 불안한 관계에서부터 야기된다. 조울증을 앓던 동생이 가스로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대니는 가족 공동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불연속성의 경험은 오랜 연인인 크리스티안과의 공허한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 크리스티안은 가족을 상실한 대니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권태로운 관계를 이어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니는

---

23)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16.
24)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성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4), 260.
25)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95.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에로스의 결합대상을 상실하게 된다. 끝없는 결핍 속에서 연속성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니가 호르가 마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미드소마의 제물이 되는 대니의 친구들은 축제에 참여하면서부터 연속성을 위협받는다. 스웨덴 하지 축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대니와 친구들을 비롯한 외지인들은 물리적 폭력에 희생당한다.

희생제의에서 죽음이라는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되듯이 <미드소마>는 호르가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죽음을 보여준다. 호르가인들이 희생제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에로티즘에서 논하는 내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드소마>에서 극단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인물들의 죽음 역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결실의 과정으로서 긍정될 수 있다. <미드소마>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대니와 외지인들의 경우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전자는 희생제의가 개인적 차원에서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대표하고 후자는 희생제의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의 공동체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Ⅳ. <미드소마>에 나타난 연속성 회복과 내적 변화

1. 호르가의 순환 원리와 공동체의 생존

미드소마에서 희생제의의 형식으로 발생하는 죽음은 모두 호르가 공동체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 종교인류학자들이 사용한 초기 씨족사회의 의례들은 대개 개인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종교적 에로티즘은 이처럼 공동체에게 영속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극적인 순간으로 기능했다. 공동체의 영속성은 씨족사회에서 생명의 유지와 직결된 농작물의 풍요에 달려있었다. 오시리스 의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신을 죽이는 희생제의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자 한다. 또 다른 신성한 죽음이 발생하는 인티치우마 의례 역시 토템동물

을 죽여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즉 희생제의의 원초적인 목표는 공동체의 생존과 맞물려 있다. 에로티즘이 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은 <미드소마>에서 호르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호르가 공동체와 미드소마를 관통하는 개념은 '순환'이다. 미드소마는 90년에 한 번, 9일간 열린다. 이것은 일종의 생애 주기를 반영한 기간이다. 호르가인들은 90년을 주기로 생명력이 쇠하고 미드소마를 통해 다시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드소마는 공동체에 게 있어서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들은 희생제의를 통해 90년 동안 소비된 것들을 기리고 다시 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미드소마에서 희생되는 외지인들의 목숨은 육지와 강에서 생산된 곡식과 육류의 풍요를 기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씨족사회에서 나타나는 희생제의로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에 기여한다.

호르가인들이 공유하는 순환적 세계관은 그들의 생애주기를 통해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사계절에 비유한 생애주기에 맞춰 인생을 살아간다. 18세까지는 성장하는 봄, 36세까지는 순례를 떠나는 여름, 54세까지는 가정을 꾸리는 가을, 그리고 72세까지는 스승으로 살아가는 겨울이 된다. 그리고 생애주기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은 미드소마에서 절벽의식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 본래 금기시되는 자살 행위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순환 원리에 봉사한다는 목적 하에 허용된다. 절벽의식을 보고 충격에 빠진 외지인들을 설득하는 마을 사람들의 대사는 공동체의 생존 문제에서 희생제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 방금 본 건 오래된 풍습이에요. 호르가 인생 주기의 끝에 다다른 분들이에요. 저분들에겐 커다란 기쁨이에요 ... 삶은 원이에요. 순환하는 거죠. 뛰신 분 이름은 일르바예요. 곧 태어날 아이가 그 이름을 잇게 되죠.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선의의 표시로. 필연적인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니까요.[26]

26) *Midsommar*, directed by Ari Aster (A24, 2019), 1:04:59. https://www.netflix.com/watch/81071055?trackId=13752289&tctx=0%2C0%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호르가 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성원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탄생으로 이어짐으로써 생을 지속한다. 죽은 사람과 태어날 사람이 같은 이름을 공유한다는 설정은 에로티즘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드소마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존재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죽음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자살과 달리 미드소마에서의 죽음은 오히려 생명을 선사하는 신성한 행위가 된다. 미드소마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됨으로써 종교적 에로티즘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하여 에로티즘의 원리는 크리스티안과 마을 처녀 마야의 의례적 성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폐쇄적인 호르가 공동체는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기시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은 크리스티안과 같은 외지인과의 성적 결합으로 탄생한다. 하지 축제에서 잉태한 아이는 생애 주기를 마감하고 죽은 호르가인의 이름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원의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전환되어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성행위는 크리스티안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행위를 통한 작은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희생제의와도 같다. 죽음에서 생명의 전환이 발하는 에로티즘의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성행위의 형식을 입고 생명의 잉태라는 물리적 결과로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처럼 공동체는 희생제의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한다. 성스러움과 공동체의 상호성에 주목한 에밀 뒤르켐은 공동체가 신성한 존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활력을 얻고 재창조된다고 했다.[27] 미드소마를 통해서 호르가 공동체는 죽음이라는 존재의 비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발현시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내

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unknown%2C%2C%2C.

27) 에밀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62-71.

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례는 죽음이라는 폭력성과 비연속성의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인간이 에로스라는 생의 욕구를 가지는 한 죽음 충동이 언제나 공존한다는 사실은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협이 된다. 희생제의는 죽음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폭력성을 해소시킨다. 즉 외부로 표출되는 타나토스는 공동체를 사랑과 유대로 단결시킨다.

희생제의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폭력성의 신성화라는 것은 르네 지라르의 통찰에서 돋보인다. 지라르는 희생제의를 원시종교의 모태로 보면서 여기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공동체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성화된다고 생각했다.[28] 희생제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종교적 의례이다.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제물을 죽이는 과정은 의례 참여자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바타유 역시 이러한 제의의 "참관자들에게까지 연속성이 이어지도록"[29] 하는 것이 종교적 에로티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희생의 기능은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폭발을 막는 데 있다."[30] <미드소마> 역시 공동체의 다음 생애주기를 위해 희생제의를 활용한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속성을 갖고 있는 호르가인들은 희생제의를 통해서 구성원을 유지하고 자원을 보장하려 한다. 하지 축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의 감소,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이다. <미드소마>의 하지 축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존속함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희생제의이다.

2.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의 긍정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험되는 에로티즘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

28) René Girard,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rans. Stephen Bann and Michael Mette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27-31.

29)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104.

30)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28.

주인공 대니의 서사에 주목한다. <미드소마>에서 희생제의의 제물이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9명의 인간이다. 기본적으로 네 명의 외지인과 네 명의 호르가인의 목숨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희생제의의 원리를 적용하면 전자는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외부를 향한 폭력이고 후자는 왕족으로 대표되는 신성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마지막 한 명의 제물을 선택하는 것은 5월의 여왕으로 선발된 사람의 특권이다. 5월의 여왕은 메이폴을 돌며 춤을 추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미드소마>에서는 주인공 대니가 5월의 여왕이 되어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크리스티안을 마지막 제물로 선택하게 된다.

대니가 5월의 여왕이 되는 과정은 에로티즘이 말하는 내적 변화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니는 미드소마에 참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의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가족의 죽음과 연인과의 권태로움으로 인해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다. 다른 외지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미드소마는 바타유가 말한 극적인 순간에 해당하지만 대니의 경우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대니에게 미드소마는 비연속적인 자아의 상태를 직면하고 죽음을 거쳐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

우선 대니는 미드소마에서 종교적 죽음을 목격하면서 점차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자살과 살해라는 일상에서의 금기가 하지 축제에서는 오히려 생명과 연결되면서 위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니에게 절벽의식은 가족의 죽음을 상기시킨다. 젊은 호르가 여인이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노인의 두개골을 박살내는 장면은 존속살해라는 유사성을 가지면서 대니에게 충격을 준다. 그러나 희생제의라는 맥락에서 죽음은 신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대니는 가족의 상실로 인한 존재의 위기를 도약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기회를 맞는다.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족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친구 펠레는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은 호르가 공동체이며 그녀 또한 일원이 된다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불에 타 돌아가셔서 난 고아가 됐어...하지만 난 상

> 실감을 느낄 새도 없었어. 여기에 가족이 생겼으니까. 이곳에서 날 받아주고 날 키워줬어. 내 것, 네 것으로 싸우지 않는 곳에서. 네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 거야. 난 늘 누군가 붙들어주는 느낌이었지. 내 가족, 내 진짜 가족이. 가족은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야. 너도 가족이 필요해. (크리스티안이) 널 붙들어 준다는 느낌이 들어? 안식처 같은 기분이 들어?[31]

펠레의 대사는 호르가 공동체로 동화됨으로써 부유하는 존재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들이 밤중에 자신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는 악몽을 꾸는 대니의 모습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위기 상황을 피하지 않을 때 호르가인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미드소마 동안 대니가 겪는 또 다른 극적인 순간은 환각상태에서 자꾸 침투하는 타자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에 취한 상태에서 대니는 풀, 나무 등 호르가의 자연물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한다. 물아일체의 경험은 대니라는 존재의 연속성이 외부와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겪는 비연속의 경험이다. 기존의 대니라는 존재가 사라질 위험한 순간은 메이폴을 돌며 5월의 여왕을 선발하는 춤 대회에서 절정에 이른다. 환각상태에서 메이폴을 도는 가운데 대니는 자신의 연속성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다. 영화에서는 춤의 절정에서 대니의 형상이 순식간에 빛으로 폭발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니의 내적 변화의 순간을 묘사한다. 이는 에로티즘의 원리, 즉 연속성을 회복하는 극적인 순간에 기존의 존재가 갈갈이 찢겨 나가는 죽음의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미드소마>에서는 대니가 호르가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을 그녀의 생일로 설정한다. 그러나 환각물질로 정신을 잃기도 했고 백야현상으로 날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니의 생일은 망각된 채 지나간다. 이는 생물학적인 탄생이 호르

---

31) *Midsommar*, directed by Ari Aster (A24, 2019), 1:11:28. https://www.netflix.com/watch/81071055?trackId=13752289&tctx=0%2C0%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unknown%2C%2C%2C.

가 마을에서 겪을 내적 변화에 비하면 완전히 무의미해짐을 암시한다. 생일에만 친구들의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펠레가 5월의 여왕이 된 대니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장면은 분명히 에로티즘의 극적인 순간을 겪고 존재론적 변화를 맞이했음을 상징하는 연출이다.

이를 통해 대니는 호르가 공동체와 연속성을 갖는 존재가 된다. 스웨덴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호르가인들과 정신적 교감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나아가 호르가인들은 대니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똑같이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완전히 연속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크리스티안과 마야의 성관계를 목격한 대니가 울부짖을 때 호르가 여성들도 마치 대니인 것처럼 같이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자신을 슬픔 속에 방치한 크리스티안과 달리 자기 자신과 동일한 호르가 공동체 안에서 대니는 연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완전한 평안을 느낀다. 5월의 여왕이 된 그녀를 축하해 주는 호르가인들 사이에서 대니는 죽은 어머니의 환영을 마주한다. 죽음의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없는 호르가 마을에서 대니는 생명력을 지닌 죽음을 이해하고 연속성을 회복한 것이다.

5월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은 미드소마의 참여자에서 주관자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땅에 곡식과 고기를 묻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제물을 고르고 불태워 희생제의를 완성하는 것이 5월의 여왕이 맡은 역할이다. 희생제의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적 행위라고 정의한 허버트와 모스는 희생제의가 제물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32] 이는 죽음을 통한 내적 변화라는 에로티즘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이것은 희생제의에 사용되는 제물이 결국 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해가 된다. 희생제의의 제물은 모두 신성한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희생제의를 통해서 신성을 획득하는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다.

<미드소마>에서 희생되는 9명의 인간 제물 역시 무한한 연속성과 생명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신성함을 얻는다. 그러나 제물의 신성화라는 희생제의의 원리는 대니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 호르가 공동체 자체와 연속성을 맺고 5월의

32) Henri Herbert et al., *The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 of Sacrifice,* 77-81.

여왕이 되어 미드소마를 주관하는 대니의 역할은 내적 변화를 통해 가장 신성한 존재로 거듭남으로써 자아가 강력하게 긍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외지인으로서의 자아가 미드소마의 제단에서 희생되면서 대니는 이제 호르가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자 순환의 원리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V. 결론

풍요로운 여름을 축하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동명의 스웨덴 하지축제를 바탕으로 한 <미드소마>는 인간을 잔혹하게 살해해 제물로 삼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려낸다. 눈부시게 흰옷과 아름다운 꽃장식, 그리고 푸른 자연에서 펼쳐지는 한낮의 축제를 그린 <미드소마>는 공포 영화이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단순히 미장센 때문이 아니라 <미드소마>에 나타나는 죽음은 금기시되거나 영원한 소멸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이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옳고 그름의 일반적인 가치체계를 벗어난 죽음은 씨족사회에서부터 시행된 희생제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희생제의는 죽음이라는 금기의 위반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에로티즘의 종교적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결합의 에너지인 에로스를 연구하면서 프로이트와 바타유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에로스의 결합욕구가 가진 존재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에로스와 공존하는 죽음의 충동이었다. 그러나 심리학적 차원에서 전개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관점과 달리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에로스와 죽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존재의 근간을 연속성에서 찾은 바타유는 존재가 비연속성으로 변하는 극적인 순간이 있는데 죽음이 바로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바타유는 죽음의 순간은 내적 변화를 거쳐 생명에 극단적으로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작은 죽음으로 연속성을 회복하는 성행위와 종교적 제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한 바타유의 논의는 <미드소마>에 종교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해주었다.

죽음으로 가득한 하지 축제는 바타유가 말하는 극단적인 순간이다.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 제물들뿐 아니라 가족과 연인에 대한 상실감으로 연속성을 잃은 대니 역시 존재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바타유는 극단적인 순간에 죽음을 감내하고 피하지 않을 때야말로 생명으로의 전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우선 공동체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희생제의의 특징을 통해 물리적 죽음들이 어떻게 호르가인들의 순환적 세계관에 부합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90년의 생애주기의 끝이자 시작으로서 미드소마는 구성원의 유지와 자원의 확보를 위해 희생제의를 활용한다. 특히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금기의 위반은 땅과 공동체 구성원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일관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내부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드소마는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에로티즘의 종교적 측면을 잘 나타낸다.

죽음을 통한 진정한 자아의 긍정이라는 에로티즘의 정수는 대니를 통해 나타난다. 가족의 상실로 비연속적인 존재의 위기를 겪는 대니는 미드소마를 통해서 5월의 여왕으로 거듭난다. 대니는 일종의 정신적인 죽음을 겪음으로써 외지인에서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연속성을 얻는다. 대니는 호르가 마을에 완전히 동화되어 결속과 평안을 느끼는데, 이틀 에로티즘의 끝에서 다시 획득한 연속성이자 삶에 강렬함을 더한 죽음의 힘을 보여준다. 친구들과 연인마저 미드소마의 제물이 되는 상황에서 대니는 처음으로 미소 짓는다. 상실과 슬픔을 완전히 지워내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난 존재의 미소이다. 죽음마저 인정하는 삶의 욕구인 에로티즘을 이해할 때 미드소마는 더 이상 잔혹한 죽음의 축제라고 할 수 없다. 죽음을 강렬한 삶으로 밀어붙이는 에로티즘에 의해 <미드소마> 속 희생제의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축제로 거듭나게 된다.

주제어: 미드소마, 아리 애스터,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희생제의, 연속성

투 고 일: 2021. 12. 10.
심사종료일: 2021. 12. 23.
게재확정일: 2021. 12. 29.

참고문헌

Aster, Ari. *Midsommar*. A24, 2019. 2h., 27min. https://www.netflix.com/watch/81071055?trackId=13752289&tctx=0%2C0%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7dc56e21401ee34043c2c3a61508a3417e924886%3A85c2950196547327fcb0f64d59f64d93d1188035%2Cunknown%2C%2C%2C

뒤르켐, 에밀(Emile Durkheim).『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서울: 민영사, 2017.

들뢰즈, 질(Gilles Deleuze).『차이와 반복』. 김성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4.

바타유, 조르주(Georges Bataille).『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_____.『에로스의 눈물』. 유기환 옮김. 서울: 문학과의식, 2002.

정승옥.「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그리고 문학」.『인문과학연구』 35 (2012): 95-114.

지라르, 르네(René Girard).『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프레이저, 제임스(James Frazer).『황금가지』. 박규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프로이트, 지그문트(Sigmund Freud).『문명 속의 불만』. 성해영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_____.『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서울: 열린책들, 1998.

B. Russell, Jeffrey, and W. Wyndham, Mark. “Witchcraft and the Demonization of Heresy.” *ediaevalia* 2 (1976): 1-21.

Girard, René.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rans. Stephen Bann and Michael Mette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Herbert, Henri, and Mauss, Marcel. *The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 of*

Sacrif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Raglan, Lord. “Myth and Ritual.” *Journal of America Folklore* 68 (1995): 454-61.

Zenkin, Sergey. “GEORGES BATAILLE: Science and Continuity.” *Romanische Forschungen* 123 (2011): 27-44.

Abstract

Sacrificial Ritual and Erotism in *Midsommar* (2019)

: Georges Bataille's Concept of 'Continuity' and Internal Change

Koh, Marie (Seoul National Univ.)

Midsommar, a folk horror film written and directed by Ari Aster, portrays the gruesome deaths taking place at the Swedish Midsummer festival. However, these deaths are allowed and encouraged in this festival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public ceremony in observing the "life cycle" that the Hårga community believes. This form of ritual is a turning point to the community for the next cycle. *Midsommar* displays a form of sacrificial ritual as the villagers plot the killing of outside guests for the community's ritu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acrificial ritual is to offer a life by turning death into life. This paradox between life and death can be explained by Georges Bataille's Erotism, which deeply delves into the concept of Eros. Bataille defined the foundation of the existence as "continuity" and introduced Erotism as a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new continuity. Through this process, death no longer leads to discontinuity. Bataille claimed that sexual behavior and religious offering resemble each other based on the principle of Erotism. I analyze *Midsommar* by focusing on how deaths become acceptable in the exchange of a new life that the Erotism refers to. Such analysis is an approach of religious studies, viewing the deaths taking place at *Midsommar* as sacrificial ritual. Deaths at *Midsommar,* which involve Taboo, violation, and the internal change, will be evaluated by the notion of Erotism.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of the sacrificial ritual that is tied directly to a community's survival will be examined and applied to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his festival. The next step will be to analyze how religious Erotism leads to self-affirmation at an individual level through Dani,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this movie.

Key Words: *Midsommar*, Ari Aster, Georges Bataille, Erotism, Sacrificial Ritual, Continuity